

‘유병자 가입도 쉽게’… 보험사, 올해도 보장성보험 경쟁

새 회계기준 도입에 발맞춰 건강보험 시장 점유율 공략 현대·KB·한화, 신상품 선배 맞춤형 상품으로 보장 강화

보험사들이 연초 첫 상품으로 건강보험을 선보이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보험업계의 ‘보장성보험’ 상품 경쟁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을 출시하면서 연초부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 시장 점유율은 손해보험사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건강한 유병자를 위한 ‘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고객의 치료 이력 구분을 세분화해 맞춤형 가격을 제공한다.

입원과 수술의 고지기간을 각각 5년까지 분리해 총 35가지의 가입유형으로 개인별 치료 이력을 세분화해 보험료에 반영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신용정보원의 보험금청구이력과 입력된 고지사항으로 맞춤형 가입 유형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대해상은 “1년 전 입원이력은 있지



Chat GPT가 생성한 건강보험 이미지.

만 수술이력은 5년이 경과한 경우 기준의 상품보다 약 15%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Plus)’와 ‘KB 골든케어 간편건강보험’ 등 2가지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두 상품 모두 유병자를 위한 간편고지형으로 구성했다.

‘3.N.5’는 업계 최초로 통합 유병자 보험에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 방문요양 급여 지원금, 데이케어센터 급여 지원금, 시설·재가급여 지원금 등의 요양·간병 보장을 탑재했다. ‘골든케어’ 건강보험은 과거 치료력으로 인해 치매·간병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의 간편 가입이 가능하다.

한화손해보험도 유병자 고객의 보

험료 부담을 줄인 ‘더 경증 간편건강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계약 전 알릴 사항 중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10년 내’로 늘렸 기존 대비 약 16%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추격자 입장인 생명보험사도 연초부터 건강보험 출시로 맞불을 놓고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한화생명은 종신보험 2종과 함께 건강보험을 출시하면서 보장성 상품시장 선전에 나섰다. 그중 ‘뇌심근건강보험’은 ‘심부전’, ‘대동맥박리’ 등 중증의 심장 및 혈관 질환까지 보장범위를 넓혔다.

ABL생명은 ‘ABL건강N더보장종합보험’을 출시했다. 주계약은 사망(경신형의 경우 재해사망)을 보장한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암, 간병, 수술·입원, 고령화로 발병률이 높은 치매, 뇌혈관질환, 관절염 등 질병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유병자 고객은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설계할 수 있다.

DB생명은 ‘실속N 7대질병 건강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업계 최초로 주요 7대 질병을 모두 보장하면서 보장받는 횟수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암, 뇌혈관 및 허혈성심장질환을 포함해 중기이상 만성 폐질환과 간질환, 만성 신부전증, 중등도이상 치매까지 주요 7대질병을 고객이 선택한 횟수 N번만큼 보장한다.

보험사들이 연초부터 건강보험 상품을 선보인 요인으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보장성보험 확보 경쟁이 꼽힌다. 보장성보험은 새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 이후 보험사 수익성의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용의하고 회계상으로 유리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제도 변경 이후 CSM 확보를 위해 보장성 보험 위주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출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지난 14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왼쪽)과 허주형 대한수익사회 회장이 ‘개물림보상보험’ 출시 기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보

DB손보-대한수익사회 반려동물 책임 강화 개물림보상 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14일 대한수익사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개물림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연간 보험료는 약 1만원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반려동물 사망 시 15만원의 위로금과 500만원 한도의 반려동물 배상책임 손해를 보장한다.

삼성생명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육성체계 개편

삼성생명은 컨설턴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육성체계를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건강상품 중심의 상품교육 개편’과 ‘비보험, 인문·AI 활용’ 과정 신설로 종합 컨설팅 역량을 배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건강상품 중심의 상품교육은 상품의 주요보장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6대 질병’과 ‘7대 치료과정’ 중심으로 개편했다. 고객의 다양한 금융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신탁 및 퇴직연금과 같은 비보험상품 과정을 보강했다. 경제금융상식, 의학, 이미지 메이킹과 같은 인문소양 콘텐츠를 30회차 신규 편성했다.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 현장 임직원, 실천 서약식

한화생명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현장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는 한화생명 GA 자회사 3사의 대표이사를 필두로 4개사의 최고고객책임자(CCO)와 임직원도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소비자권의 보호가 기업 존속 및 성장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재다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현장은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서비스 ▲민원공정·신속 대응 ▲고객 자산·정보 보호 등의 행동강령과 실천의지를 담았다. /김주형 기자

임종룡 “윤리 의식 내재화… 신뢰받는 우리금융 되자”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 워크숍 임직원들 윤리경영 실천 결의 다져 자산 리밸런싱·계열사 시너지 추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올해는 신뢰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개인의 윤리 의식 제고와 조직 내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그룹 차원의 윤리경영 실천에 모두가 한뜻으로 몰입해 반드시 ‘신뢰받는 우리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임직원들에게 윤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윤리 의식을 내재화하고, 조직과 업무 전반의 약한 고리를 반복적으로 점검해 엄정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하게 적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서울 회현동 소재 본사 비전홀에서 열린 ‘2025년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올해 경영전략 공유와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4년 성과 리뷰 ▲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15일 회현동 소재 본사 비전홀에서 ‘2025년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여섯번째)과 그룹사 대표들이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금융

2025년 전략 방향 공유 ▲유공직원 시상 등 기존 경영전략워크숍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도 예년과 다르게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을 진행해 신뢰받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의 장으로 차별화했다.

임 회장은 “기업문화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으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만드는 과정은 한번에 만드는 ‘주조’ 작업이 아니라 쉽 없이 담금질을 계속 해야하

는 ‘단조’작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중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영업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한 해를 마무리한 그룹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경영전략으로 ‘보통투자본비율제고를 위한 자산 리밸런싱’과 ‘14개 계열사가 원팀으로 뭉쳐 시너지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상반기 1기 신도시 예비사업 시행자 선정

국토부, 노후도시 지원기금 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금 점검회의’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금 7개 기관의 2024년 업무성과와 20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국토부와 지원기금의 업무 목표표로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 등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상반기 중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도시핀드투자설명회(3월) 및 모펀드 조성(12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3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3월, 국토연구원 등)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2025년에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금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